

남극조약당사국회의 38차 연례회의 한국의 남극활동 새로운 전기를 찾아



극지연구소 국제협력실 &
제38차 연례회의 정부대표단

날짜와 장소; 2015.6.1-6.10, 불가리아 소피아

대표단 구성; 외교부 해수부 환경부 극지연구소

준비 경과; 1회 준비 회의

올해의 주요 이슈



출석 체크; 베네주엘라 폴투갈 (CEP)

Executive summary

환경보호위원회; CEP 중장기 업무 계획, 환경영향평가 (활주로, 기지 등), 외래종 퇴치 및 검역 강화 방안, 각국 기지 및 활동지역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경과

법제도작업반; 환경보호의정서 제6부속서의 발효촉진, 비협의당사국의 자발적 기여 메커니즘, ATCM WG 구조와 연례회의구성 방식개선구소

운영작업반; 전지구 기후변화 맥락에서 남극 연구 수행안, 과학 협력, 새 이슈 (무인항공기)

내년 39차 ATCM에서 남극조약환경보호의정서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올해 교육홍보워크숍 성과 확산 포함)

환경보호위원회;

CEP 중장기 업무 계획

남극환경포털(Antarctic Environmental Portal) 운영;
종립성, 관리 투명성 강조, 관리계획 초안 작성 ATCM
에 제출하기로 합의

2012년 처음 '남극환경포털' 제기

2015년 6월 베타 버전 가동

정책결정을 돕는 과학정보의 객관적, one-stop 집대
성; 취지와 특정 의제 추진에 이용 우려 아직
어떻게 운영하고 (자금, 인력)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까

환경보호위원회;

기구 협력

CEP-CCAMLR 과학위 공동 워크숍; 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

이태리 활주로 in progress 초기 환경영향평가

내년에는 정식 제출 극지연구소

환경보호위원회;

검역

외래종 매뉴얼 업데이트 위한 ICG 결성 (영국제안)
우리나라 기지 검역소 설치 계획, 외래곤충 ip 제출 의
향



환경영향 모니터링
장보고기지 1년 모니터링 결과 보고
환경영향평가 예측 수준 내
중장기적으로 감사 audit 고려할 만

법제도 작업반;

각종 결정 사안의 보고서 반영 방안 개선
; ATCM 채택 조치, 결정, 결의 인용방법 개선, 관련 논의 최종 문
단을 인용하기로

WG 구조 개편을 통한 총회와 의제 재배분

매 회기마다 의제별로 차기 총회에서 다룰 의제를 검토하여 의제
를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합의
More plenary discussion 필요에 공감
WG 의장 임기 제한; 2+2

예산 협의를 위한 상설 WG 설치
당분간 현행대로

서기 rapporteur 결정 투명성; 소규모 인력 pool 에서 주최국이
계약으로 해결하는 관행, 독점 지양, 교육 필요성

법제도 작업반;

각종 결정 사안의 보고서 반영 방안 개선
; ATCM 채택 조치, 결정, 결의 인용방법 개선, 관련 논의 최종 문
단을 인용하기로

WG 구조 개편을 통한 총회와 의제 재배분

매 회기마다 의제별로 차기 총회에서 다룰 의제를 검토하여 의제
를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합의
More plenary discussion 공감
WG 의장 임기 제한; 2+2

예산 협의를 위한 상설 WG 설치
당분간 현행대로

서기 rapporteur 결정 투명성; 소규모의 풀에서 주최국이 계약으
로 해결하는 관행, 독점 지양, 교육 필요성

법제도 작업반;

ICG (intersessional contact group) 활성화
필요성과 행정부담과잉 사이에서 특별한 결론 없이

비협의당사국의 자발적 기여금 공여 촉진 방안

환영하나 각종 문제

의무적 성격의 회의참가비 설정, 자발적 기여금으로 구성되는 별도 기금 설치, 비협의당사국에 대한 의무분담금 설정 등에 대해 비공식 협의 진행하기로

ATCM과 CEP 개최 기간 분리와 ATCM 회기 조정(연 2회?)
노르웨이와 뉴질랜드가 회기 조정안 공동 제안, 일부 국가(영국, 아르헨, 러시아)가 효율성 제고라는 취지에서 공감, CEP와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협의 필요성, 회의 예산의 증가 등이 제기되며 추가 예산 부담금액 및 가상의 회의 일정 등을 상정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법제도 작업반;

환경보호의정서 제6부속서 관련

- 기수락국(뉴질랜드, 노르웨이)들을 중심으로 결정문의 채택 등을 통해 동 부속서의 수락을 촉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다수 국가의 반대로 초안보다 완화되어 기존 결정문의 기조를 유지한 수준으로 채택
- 수락 촉구를 위한 별도 협의체 마련 및 국내절차 진행현황 서면 회람안 등이 논의되었으나, 현존 의견교환 체제를 재언급하는 수준으로 합의
- 부속서에 대한 재협상 일정은 2020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결정
- 다수 국가가 국내법 제/개정 및 구체 이행메커니즘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수락국 및 미수락국과 정보교환 및 사례 조사, 공조 등을 통해 부속서 수락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39차 ATCM 계기 개최로 추진중인 남극조약환경보
호의정서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관련, 뉴질랜드, 노르
웨이 등은 이 심포지엄 개최 준비에 참여 의사 표명

이 심포지엄의 의제, 개최 일자에 대해서는 준비 참여
의사 표명 국가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심포지엄 개최 일정 관련, 회기 내 주말(토)에 개최하
는 방안을 검토 중

운영 작업반;

COMNAP(남극프로그램 국가 운영자위원회) 제출한 남극에서 무인항공기 사용 관련 문서 검토, 무인항공기 사용에 따른 남극환경에의 유익과 위험, 그리고 남극활동과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속 필요성 및 장기적 차원에서 규정 내지 규칙 (regulation and rules)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

8월 COMNAP 연례회의에 별도 세션

안전, 수색과 구조

수색과 구조 협력, IMO의 Polar Code 발효 이후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정보공유 등 관련 사항과 non-SOLAS 선박 (어선 포함)에게 적용되는 규정 개발을 위한 제2단계, 선박안전 관련 수로측량활동의 중요성 등을 재확인

운영 작업반;

남극사찰활동

**영국과 체코 2014/15 남극사찰활동 결과 보고, 권고안 제출하였
음을 설명**

**일부 회원국 자국 관련 사항 답변
일부 회원국 권고는 권고임을 강조하고, 과학연구활동에 대한 품
질제고 조언은 권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

*** 우리 대표단은 체코의 적극적인 남극활동 수행 치하**

운영 작업반;

과학 이슈, 과학연구협력과

프랑스가 제안한 기후변화가 남극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및 올해 연말 파리에서 열리는 COP21과의 연계 필요성, 관련 연구의 강화 등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이견; 미국 중국 러시아 남아공

*우리 대표단 아시아극지과학포럼(AFoPS) 활동과 국제협력 역할 의향 소개

*루마니아 한국 협조에 대한 찬사

동남극 과학협력 구상 (중국과 호주 주도, Ross 해 포함, 원칙적인 찬성과 지지 뒤 약간의 경계, 주목하는 자세)

교육과 홍보 워크숍

- 5.31.(일) 교육과 홍보 워크숍; 16개국 및 3개 옵서버 (ASOC, IAATO, COMNAP)의 남극 조약과 환경보호 의정서 하 활동 소개
- 2016년 ATCM 계기 개최될 환경보호의정서 발효 25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행사 협의
- Youth congress 개최 제안 (고등학생 혹 대학생?)
- 워크숍 성과 확산; 25주년 행사 준비 위해 'ATCM Education and Outreach Forum' ICG 형태로 형성과 활동 제안, ToR 마련하기로

우리 대표단 별도 활동

- 아르헨티나 대표단 면담 (DNA Mariano Memolli, IAA, Nestor Coria)
- 양자면담 (아시아 극지협력 한-중, 한-일, 한-루마니아)
- CCAMLR 과학 담당관 Keith Reid 면담 (이번 WG-EMM에 우리나라 남극 펭귄 관련 연구활동 현황과 계획 서면 보고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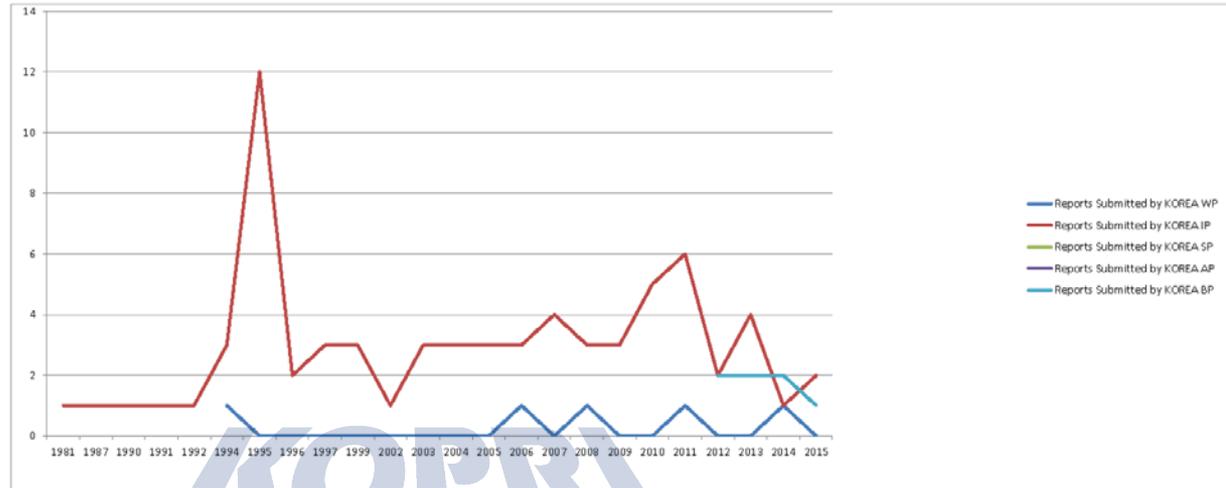
다음 단계는?

post 장보고 의제 발굴이 필요 (예, 남극연구 지역협력)

휴회기간 활동에 적극적 참여, 선택과 결정 (예, 외래종 IP, 남극연구협력)

중견국가로서 활동 영역 발굴, 협력체계 구축

Reports Submitted by KOREA					
Year	WP	IP	SP	AP	BP
1981		1			
1987		1			
1990		1			
1991		1			
1992		1			
1994	1	3			
1995	0	12			
1996	0	2			
1997	0	3			
1999	0	3			
2002	0	1			
2003	0	3			
2004	0	3			
2005	0	3			
2006	1	3			
2007	0	4			
2008	1	3			
2009	0	3			
2010	0	5			
2011	1	6			
2012	0	2			2
2013	0	4			2
2014	1	1			2
2015		2			1



우리나라 ATCM 활동

연 2-4 건 paper (활동소개, 기지신축, ASPA 관리계획)

일본과 중국은

일본 연 ~3건 (활동소개, 사찰)

**중국 연 ~4건 (활동소개, ASPA 관리계획, 기지신축,
Kunlun 기지 ASMA 제안)**

노르웨이 연 >10건

다른 나라는? 뉴질랜드?

한중일 활동 그리고 다른 중견국과 활동 비교

정량 비교 후 정성 평가

보고서에 남은 statement 비교

결의안 생성 과정 역할?



남극사찰 현실성

**기존 사찰 활동 Grouping (사찰주도국, 사찰대상, 교통 편의와 시설 활용, 주력 사찰 사안과 유형, 권고안 변천사)
우리 나라의 가능성은? 1-2년 안에? 정부와 연구소 협업**

중진국 역할 강화; 양자 남극 협의와 연계?

제안을 한다면



정기 모임; 출장 후 보고회, 연 2회 모임 (가을 봄)

매년 연례회의마다 개최국 주력 상품

내년 칠레 남극의정서 25주년 심포지엄은 어떻게 대응?

모의 남극조약 당사국 총회? 모의 환경보호위원회?

강연자 제공?